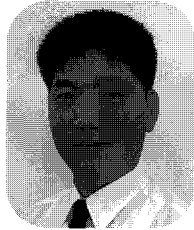


3월 지육시세는 2,30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유전자원(주) 생산팀

2003년도 3월은 돈가에 봄이 오는 시기가 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승을 시작한다면 예년처럼 3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1월에 조사한 가축 사육두수에 따르면 2~4개월령 돼지 사육두수가 전분기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여, 올해에는 5~6월 돼지가격의 강세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수입돈육 재고물량의 증가이다.

2002년도 돈육 수입량은 71,004톤으로 2001년도 수입량 51,545톤에 비하여 37.7%가 증가하였고, 재고량도 연말을 기준으로 1만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돈육의 증가는 국산 냉동 전후지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고, 육가공업체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육가공업체의 도축물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내 산지가격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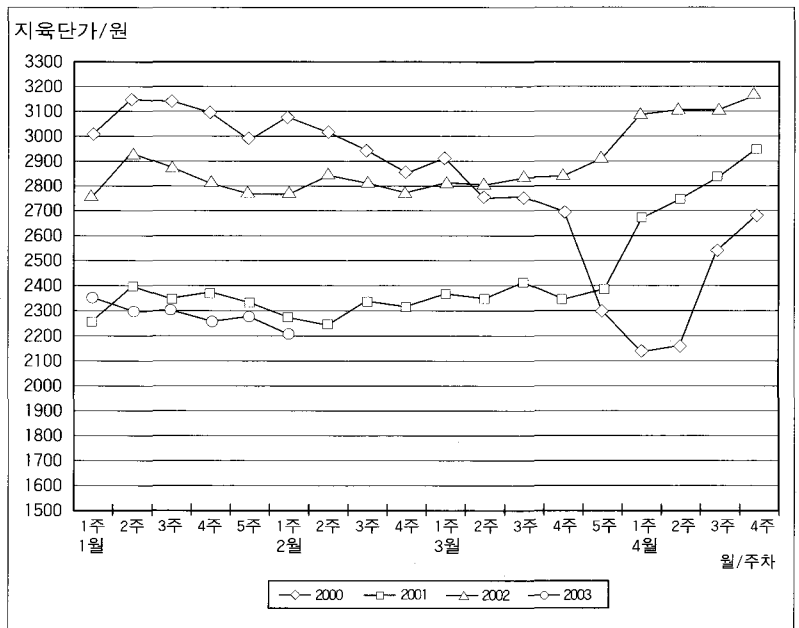
인다.

둘째는, 국내산 돼지 출하두수 증가추세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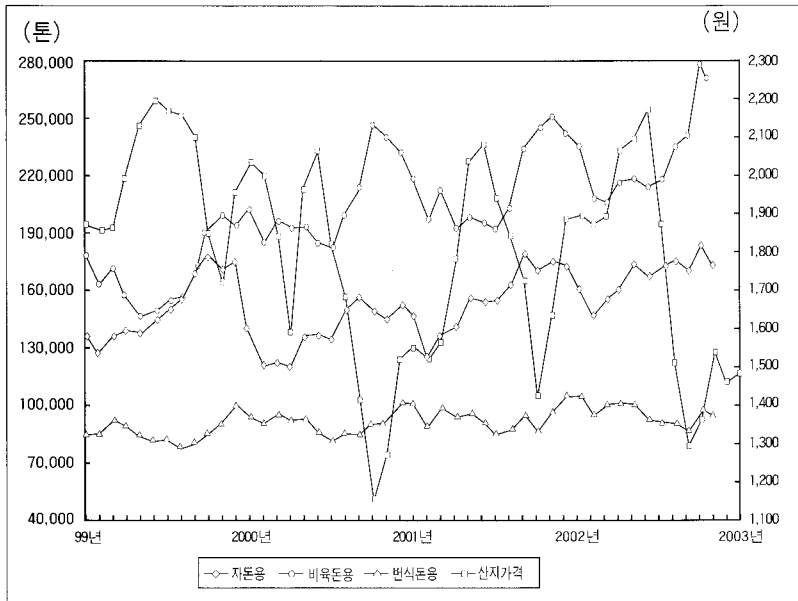
2002년 말의 가축 사육두수 통계 자료를 보면 모돈수는 954,689두로써 전분기 956,448두에 대비하여 0.18% 감소하였지만 감소 폭이 미미한 관계로 출하두수의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도 2월의 비육돈 단가는 당초 예상한 대로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 2,250원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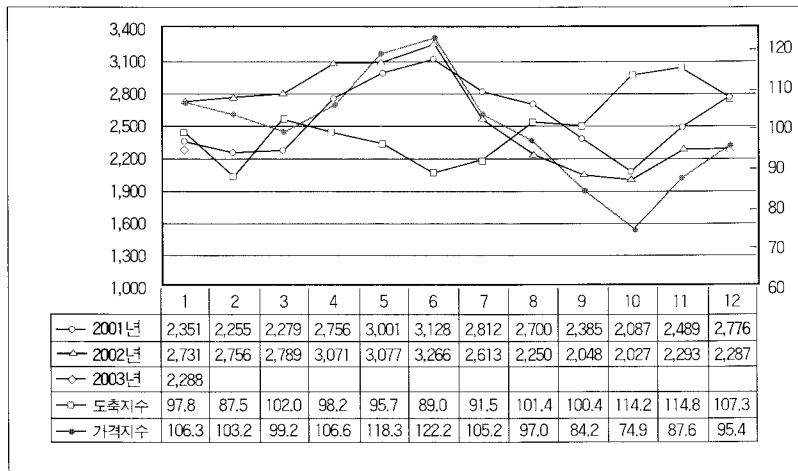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전국 주요 1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3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제불황의 여파가 돈육시장에서도 나타나면서 현재 국내의 돈육소비시장의 동향은 해외 수입돈육의 재고누적으로 인한 덤핑물량의 증가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증가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미국과 이라크, 북한간의 전쟁

위험 고조가 유가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쉽게 경기가 호전되어 수요가 증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돼지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학교가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의 단체급식의 증가로 인하여 지육단가가 하락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3월은 돼지 도축두수가 2월보다는 증가하는 달이기도 하다.〈그림 3 참조〉 그러나 돼지고기의 소비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돼지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2월보다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측면에서는 학교의 개학으로 신학기가 되면서 학교급식

등의 단체급식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물량도 같이 증가되어 오히려 약간의 산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 3월의 전국 12개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는 2월보다는 약간 상승하여 2,3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